

		<b>보 도 자 료</b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	배포일시	2018. 2. 1.(목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서정석, 주무관 박일욱 • ☎ (044) 201-4253, 4226	
	지적재조사기획단	담당자	• 과장 정해익, 사무관 안종태 • ☎ (044) 201-4657	
협업 기관	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실	담당자	• 실장 김용하, 부장 김진성 • ☎ (063) 906-5333	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지적국토 조사용 “드론 뜬다” ...방글라데시·에티오피아 진출 도모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전담조직 신설·플랫폼 고도화·기술 개발에 15억 투자

- 국토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·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국토정보공사(사장 박명식, 이하 LX)는 그간 실험·시범사업\*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그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.

\* 실험사업('16, 8개 지구), 시범사업('17, 20개 지구) 후 드론활용 운영매뉴얼 제정('17)

### < 분야별 드론 활용 주요내용 >

활용분야	드론 활용 주요내용
지적재조사	·(사업지구 선정)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추출 ·(현지조사)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(토지대장 등) 비교·분석 ·(경계협의) 토지소유자·이해관계인 대상 경계확인·협의
국토조사	·(토지보상) 공익사업 토지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진 등 제공 ·(공유지 조사) 관할지역 내 공유지 사용실태 모니터링 ·(사업지구 관리) 불법증축·지장물 설치 등 실시간 모니터링

□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(본부당 3명씩 배치)한다.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4차 산업 흐름 하에서 신설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.

○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. 그간 전문 교육기관\*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.

\* 대학교·협회·제작업체 등이 항공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용 중(총 22개)

○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. 작년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하였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. 이와 같은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□ 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.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‘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\*’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하여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(3월)할 예정이다.

\* 국토 실태조사 등을 위해 국가·지자체 등이 발주하여 LX가 수탁하는 사업에서 촬영된 영상·사진자료를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형태



- 국가·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.
- 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. LX는 우루과이의 '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'(약 65만 불)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였다.
  - \* 지적도면의 도심지역은 5~10m, 농경지는 약 100~150m의 위치정확도가 향상
- 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, 방글라데시·에티오피아·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.
- 이처럼 LX가 드론을 국·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 시장은 연간 50억원\*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,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\*\*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\* (국내 지적재조사) 12억원, (국내 국토조사) 27억원, (글로벌 사업) 11억원
  - \*\* (지적재조사) 사업지구당 19개월→16개월(2인 1팀 기준), (국토조사) 20일→5일(0.6km<sup>2</sup> 기준)
- LX 관계자는 “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·사진을 기반으로 측량의 고급화·효율화를 이뤄 세계에서 인정받는 측량기술을 다듬어 나갈 것”이라는 포부를 내비쳤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·확산하여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”는 방침을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253), 지적재조사기획단 안종태 사무관(☎ 044-201-4657),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진성 부장(☎ 063-906-53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